

##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Developmental Environment and Adjustment of Korean-Chinese  
Children Separated from Both Their Parents\*

조복희(Bokhee Cho)<sup>1)</sup>

이주연(Joo-Yeon Lee)<sup>2)</sup>

### ABSTRACT

Recruited from Korean-Chinese pre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in Shenyang and Harbin, China, 150 caregivers of Korean-Chinese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provided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separation(reason and duration of parent-child separation, present location of parents, etc.). They also filled out information about children's responses as to when the children had been separated and about children's behavior problems(Behavior Rating Scale, Behar & Stringfield, 1974).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children were cared-for by relatives. Caregivers reported that the separated children adjusted positively to parent-child separation and were not anxious about living with a caregi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by duration of separation from mother and frequency of contact between parent and caregiver.

**Key Words** : 부모별거(parent-child separation), 중국 조선족 아동(Korean-Chinese children), 적응(adjustment), 문제행동(behavior problem).

### I. 서론

1992년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 조선족의 한국방문은, 제한된 친척방문이 주를 이루었던 초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취업 목적의 방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로써 2004년에 한국 내에 체류한 중국 조선족의 수는 약 15만명에 이르렀다(법무부, 2004). 중국 조선족의 한국취업은 그들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취업을 통해 얻은 부의 축적으로 인하여 한국을 꿈의 땅으로 여기는 등 그들의 가치관에도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sup>1)</sup>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sup>2)</sup>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409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Email : idscot@hanmail.net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이현정, 2000). 실제로 길림성 신화촌의 경우 300가구 중 290가구가 조선족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 한국에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변 전체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조선족의 비율은 현재 약 20%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취업의 증가로 인해 연변지역의 경제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중국 어느 지역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GDP성장률을 살펴보면, 1980년에 1인당 GDP는 548위안(1위안은 약 130원)이었던 데에 비해, 2000년에는 5921위안으로 20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성장을 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6513위안, 2002년에는 7083위안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한편, 이러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 예로 연변 자치주내에 나이 트클럽, 다방, 사우나 등의 소비업소가 증가하여 과소비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유명기, 1999). 또한 한국에 나가지 못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조선족의 경우는 한국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멸시와 냉대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이현정, 2000; 한현숙, 1997). 무엇보다도 중국 조선족 젊은이들의 한국취업 증가는 연변 내 농촌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심화시켜 '조선족 사회의 해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한국경제신문).

한국취업과 관련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는 중국 조선족의 한국취업이라는 사회적인 변화 자체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박두복, 1997; 유명기, 1999)가 그것이다. 연구의 또 다른 영역은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한 미시적인 접근으로, 중

국 조선족들의 한국 내 생활적응과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김일권, 2004; 이현정, 2000; 한현숙, 1997)들이다. 후자의 경우 모든 연구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의 생활과 적응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사회적 변화속에서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 내 중국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내의 변화와 적응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의 한국취업 증가는 조선족 사회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 조선족 젊은이들의 한국취업으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해체에 대한 우려는 더 나아가 그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의 해체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유명기(1999)에 의하면, 중국 심양시 화평구 조선족 소학교 1,200명의 학생 중 부모가 출국한 학생이 212명으로 18.3%를 차지하며, 기업이나 사업을 위해 타인에게 자녀를 위탁한 경우도 120명(10%)에 달하여 무려 28% 가량의 아동이 사별, 이혼 등의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부모와 별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례는 최근 급격하게 일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가 중국을 떠나 생활하는 어른세대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 중국에 남게 되는 자녀세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들과 떨어져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취업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가족기능의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긍정적인 아동발달과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의 맥락에서도 그 연구의 필요

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한국 내 취업증가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적응을 중국 조선족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즉, 부모의 한국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내 조선족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적응양상을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는 부모와의 별거가 중국 조선족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주말부모의 아동과 조기유학 아동을 비롯한 부모별거 아동의 연구를 위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영아기 애착형성과 이후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들(Ainsworth, 1989; Bowlby, 1973; 문진희, 1999; 김선주·권정혜, 2001)로써,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의 개념을 '분리경험' 혹은 '격리경험' 등으로 소개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일시적인 분리, 예를 들어 취업모가 아이를 daycare에 맡기는 경우 등의 분리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Bowlby (1973)의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그러한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Bowlby(1973)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아들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생후 초기의 애착은 전 생애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데, 이는 영아가 애착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하여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원리에 의해 가능하다(Bowlby, 198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신체

적 근접성의 유지로부터 애착대상에 대한 유용성의 유지로 변화된다(Ainsworth, 1989). Kerns, Klepac과 Cole(1996)은 아동기 중기와 후기의 아동들이 스트레스 시에 위안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험할 때 안전기반으로서 애착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였다. Bowlby의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초기 애착유형이 아동의 이후 사회성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아동발달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Thompson, 1998). 구체적으로 안정적 애착유형의 아동들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아동들보다 낯선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Sroufe, Carlson, & Schulman, 1993), 문제해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적응을 잘하며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행동을 보인다(고경애, 1984; Laible & Thompson, 1997; Matas, Arend, & Sroufe, 1978).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 중 불안-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rossmann & Grossmann, 1991; Londerville & Main, 1981; Sroufe, 1983).

이와 같이 생애 초기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는 아동의 이후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에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Ainsworth, 1989; Clarke-Stewart, 1987; Hoffman, 1989; Thompson, 1998). Bowlby(1973)는 특히 3세 이전 주 양육자로부터의 분리경험은 아동의 정서상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이며, 분리경험에서의 분리시기, 분리기간, 분리빈도 및 분리의 규칙성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리기간이 아동의 반응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반복

되는 분리경험은 분리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분리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덜 준다는 입장에서 분리의 규칙성도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73). 한편, 생의 초기 잦은 양육자의 변경은 양육환경의 변화 및 일관성의 부족을 가져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한다(Clarke-Stewart, 1987). 그러나 타인양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즉, 타인양육이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생후 6개월 전에 시작된다면 이후에 시작된 것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생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시작되는 타인양육은 어머니의 유용성에 대한 유아의 기대를 위협하게 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offman, 1989; Howes & Hamilton, 1992). 이와 같이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로부터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분리시기나 기간, 분리빈도 등 다양한 관련변인에 따라 개인차가 있음을 보고한다(Thompson, 1998).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좀 더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분리경험을 다루기도 한다. 부모와의 이별경험과 아동의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Hetherington, Cox, & Cox, 1985; Hetherington & Jodl, 1994; Ribble, 1970; Wallerstein & Blackeslee, 1989; 유영희, 1979; 이봉애, 1994; 이규리, 1994)에서는 '부/모성실조'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부/모의 사망, 이혼 혹은 양육거부나 무능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는 다소 구별되게,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부모사별'이나 '부모이혼'의 경

험이 있는 편부모 가정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시설수용 아동의 경우 지적발달과 언어능력이 부진하며 특히 5세 이전에 부/모성실조를 경험할 경우 발달에 큰 손상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부/모성실조를 경험한 아동은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 부적응으로 인해 성격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Ribble, 1970).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성실조아들은 대인접촉의 결핍으로 인해 정서적 통제력의 부족과 사회적 일치도의 저하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도벽, 거짓말, 잔인성과 같은 문제행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 결손과 소외감을 갖는다고 보고한다(Wallerstein & Blackesless, 1989; 이규리, 1994).

부/모성실조의 경험은 비록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정서적으로 부적응을 야기시키기는 하나, 이는 모든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다(유영희, 1979). 부/모성실조의 영향력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실조이전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들 수 있다. 즉, 부/모성실조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경험했던 아동은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적응문제 등에 있어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다(Feldman, 2000). 또 다른 요인으로 Yarrow(1964)는 대리양육자의 보호의 질을 지적하였는데, 적절한 대리모성이 제시된다면 극단적으로 심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종합적으로, 분리경험 연구나 부/모성실조 연구는 모두 부모로부터의 분리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으로써 분리의 시기, 분리의 기간, 아동의 성별, 분리이전 부모와의 관계의 질, 대리 양육자(대리 모성)의 존재유무, 분리형태 등의 변인들을 지적한다. 비록 이들 연구가 부모분리에 따른 아동발달의 전반적인 영향과 관련변인들을 잘 보여주고는 있으나 두 연구분야에서 측정한 부모로부터의 분리 개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부모분리 현상과는 개념적인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별거’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별거’란 부모의 취업, 유학, 거주지이전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아동이 부모 모두와 일정기간동안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아동은 시설에 맡겨지기 보다는 다른 대리양육자에게 맡겨져 양육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별거’의 개념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인 격리의 개념이 아니며, 동시에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에 의한 부모이별의 개념으로부터도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부모별거’의 개념을 포함하는 선행연구는 캐나다 또는 영국 등 서구 선진국가에 취업한 부모를 둔 카리브해 국가들의 아동을 대상으로 미비하게나마 수행되어왔다(Arnold, 1997; Baptiste, hardy, & Lewis, 1997; Glasgow & Gouse-Shees, 1995; Smith, Lalonde, & Johnson, 2004; Thrasher & Anderson, 1988). 이들 선행연구들은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캐나다나 영국으로의 이주시 부모가 먼저 이민을 간 후,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 사회의 현상에 대한 연구로써, 연속이민(serial migration)과 가족분리(family separation)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 가족분리를 경험하는 가족들은 많은 경우, 그들의 자녀를 확대가족의 구성원에게 맡기며 분리기간 동안 자녀들과 대리양육자에게 물질적인 자원을 공급한다. 그리고 편지, 전화, 인편접촉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의 관계

를 유지한다(Arnold, 1997; Thrasher & Anderson, 198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보고는 가족분리 혹은 부모별거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하나, 부모분리기간 동안의 자녀의 적응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녀가 이주국가로 초청되어 온 이후, 부모와의 재결합(reunion)상황에서 나타내는 적응양상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갖는다. 더욱이 연구들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예를 들어 Glasgow와 Gouse-Shees(1995)는 아동들이 부모와 떨어져 친척들에게 남겨진 기간동안과 부모와의 재결합시 부정적 적응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반면, 몇몇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 가족분리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성, 새로운 적응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정도, 부모부재의 기간, 대리양육자의 잦은 변경, 이주사회의 특징 등에 의해 다양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Smith 등, 2004; Sua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이처럼 부모와의 별거경험은 비록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겠으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과 문제행동을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들의 대리양육자, 부모와의 별거기간, 부모의 현거주지, 부모와의 연락방법 및 횟수, 별거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부모별거에 따른 아동의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부모가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와 별거시의 아동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별거 관련변인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의 일반적인 경향(대리양육자, 부모와의 별거 기간, 부모의 거주지, 연락방법 및 횟수, 별거이유, 적응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가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별거아동의 적응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별거 관련변인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중국 심양시와 할빈시의 조선족 소학교 4, 6학년 혹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 중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현재 양육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152명의 양육자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2명의 경우는 부모별거의 이유가 부모의 사망 혹은 이혼이었기 때문에 최종분석에서 제외하고 유학이나 타지역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에 대한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아의 양육자가 60명(40.0%), 여아의 양육자가 74명(49.3%), 무응답 16명(10.7%)으로 총 150명의 양육자가 응답한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모별거의 일반적인 경향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와 기간, 부모의

거주지, 부모와의 연락방법 및 횟수, 한국취업의 경우 그 이유와 수입용도 등 부모별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상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질문지 응답자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 2) 문제행동

Haper(1984)는 아동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치 못한 경우를 문제행동으로 규정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비행, 거짓말, 싸움, 반항 등과 같이 사회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적인 것과 열등감, 공포, 불안 등과 같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방해하는 정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서용운, 197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와 정서적 부적응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ehar와 Stringfield(1974)가 개발한 교사용 행동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동성-산만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10문항, 9문항, 4문항의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적대-공격성 7문항, 걱정-불안 4문항, 과잉행동-산만 3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아님', '조금 그러함', '자주 그러함'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적대-공격성 .77, 걱정-불안 .69, 과잉행동-산만 .58이었다.

#### 3) 부모별거시의 아동의 반응과 적응

문제행동 문항과 더불어, 부모별거 후의 아동의 적응을 다음의 5개 문항으로 추가 질문하였다. 적응문항에는 1) 외로워한다, 2) 공부를 소홀

히 한다, 3)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4) 친구들과 지나치게 어울리거나 멋대로 행동한다, 5) 부모와 멀어지고 대화가 안된다 등을 포함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부모별거시의 아동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1)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기뻐했다, 2) 한국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부모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3) 부모와 떨어져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을 불안해했다 등의 3 문항을 질문하였다. 부모별거시 아동의 반응에 대한 문항은 한국취업의 거주에만 해당사항을 국한시켰으며, 아동의 적응문항에서와 같이 5점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발달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자료의 일부로써, 2003년 12월에 중국 요령성 교육학원 민족교육부와 하얼빈 민족교육국에 도움을 얻어 심양시 소재 조선족 소학교 두 곳과 유치원 두 곳, 할빈시 소재의 조선족 소학교 한 곳과 유치원 한 곳에서 수집되었다. 원자료는 조선족 유치원 및 소학교 4, 6학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들에 한하여 대리양육자가 응답하도록 한 경우이다. 원자료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해당 연령아동의 가정에 전체 8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726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152부가 대리양육자에 의한 응답으로, 전체의 약 21%가 부모별거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별거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거주지, 부모와의 분리기간 및 이유, 연락방법 및 횟수 등을 빈도분석하였으며, 부모

별거시의 아동의 반응과 적응문항 또한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척도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부모별거 관련변인별로 아동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 부모별거 기간, 그리고 연락횟수의 집단간 차이를 t-test 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부모별거의 일반적인 경향

#### 1) 대리양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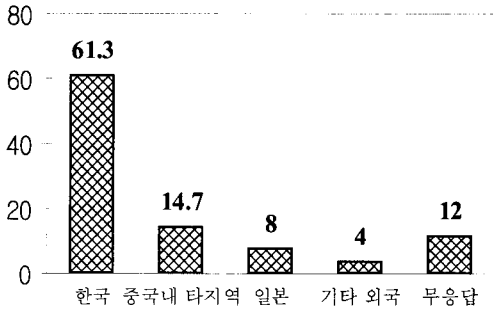
중국 조선족 아동의 부모별거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대리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설문문의 응답자이기도 했던 대리양육자와 아동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이모 혹은 고모인 경우가 33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할머니가 24명(22.4%), 외할머니 21명(19.6%), 기타 12명(11.2%), 삼촌 8명(7.5%), 할아버지 7명(6.5%), 외할아버지 2명(1.9%)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와의 별거기간

본 연구는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떨어져 사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분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와의 분리기간은 1개월에서 156개월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분리기간은 47개월이었다. 어머니와의 분리기간 역시 1개월에서 147개월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고, 평균 분리기간은 40개월로 나타났다.

#### 3) 부모의 현 거주지

부모별거의 이유와 현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취업이 92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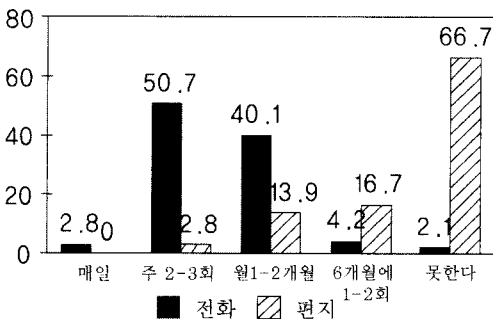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거주지역 분포

며, 부모가 중국 내 다른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별거한다는 응답이 22명으로 14.7%, 그리고 한국 이외의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수가 18명(12%)에 해당하였다(그림 1). 부모별거의 상세한 이유를 응답케 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유학을 그 목적으로 보고한 반면,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내 타지역, 미국, 호주 등의 거주는 대부분 취업이 그 목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비록 부모의 거주지역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상세한 이유에 대한 문항은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별 차이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4) 부모와의 연락방법 및 횟수

부모별거 아동이 부모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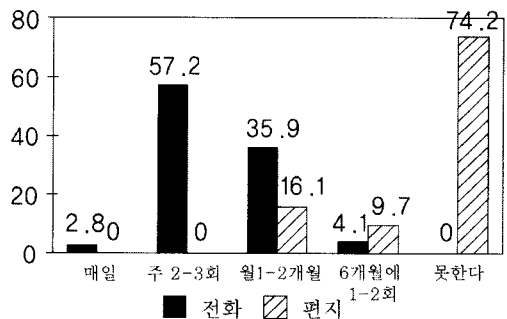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와 아동 간 연락 방법 및 횟수

는 <그림 2>와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그림 2>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중국 조선족 아동과 그들 부모간의 연락방법과 횟수별 분포이다. 편지보다는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화를 하는 횟수에 있어서는 주 2-3회가 약 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 1-2회가 약 40%로 나타났다. 매일 전화를 하는 경우는 3%정도였던 반면 6개월에 1회 정도 전화를 하는 비율은 4%, 전혀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도 2%나 차지하였다.

<그림 3>에 의하면,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의 대리 양육자간 연락방법 역시 편지보다는 전화가 월등히 많았으며 약 57%의 양육자가 부모와 주 1-2회의 빈도로 전화통화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월 1-2회가 36%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와 아동간의 연락방법과 횟수, 그리고 부모와 대리양육자간의 연락방법과 횟수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알 수 있다.

5) 부모별거와 아동의 적응

부모와의 별거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생활적응과 관련된 5문항에 대해 대리양육자들은 부모별거 아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적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3〉 부모와 양육자 간 연락 방법 및 횟수



〈표 1〉 분리적응 문항별 응답 비율 n=150/(%)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조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무응답      |
|-----------------------------|-----------------|-----------------|----------|-----------|-----------|----------|
| 1) 외로워한다                    | 39(26.0)        | 23(15.3)        | 20(13.3) | 38(25.3)  | 12( 8.0)  | 18(12.0) |
| 2) 공부를 소홀히 한다               | 45(30.0)        | 18(12.0)        | 36(24.0) | 18(12.0)  | 7( 4.7)   | 26(17.3) |
| 3) 건강을 잘 돌보지 않는다(식습관 등의 문제) | 60(40.0)        | 24(16.0)        | 19(12.7) | 12( 8.0)  | 3( 2.0)   | 32(21.3) |
| 4) 친구들과 지나치게 어울리거나 멋대로 행동한다 | 59(39.3)        | 29(19.3)        | 20(13.3) | 9( 6.0)   | 4( 2.7)   | 29(19.3) |
| 5) 부모와 떨어져고 대화가 안된다         | 61(40.7)        | 33(22.0)        | 17(11.3) | 14( 9.3)  | 3( 2.0)   | 22(14.7) |

살펴보면, ‘외로워한다’의 문항에 대해 2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그렇다’가 25%, ‘별로 그렇지 않다’가 15%, ‘보통이다’가 13%, ‘매우 그렇다’가 8%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소홀히 한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3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4%가 보통이다, 각각 12%가 ‘별로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외로움보다는 학업과 관련된 적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친구들과 지나치게 어울린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가 안된다’ 등의 세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고 ‘조금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채 3%가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한국취업

### 1) 부모의 한국취업 이유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생활비를 벌기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33%가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약 10%는 노후 경제적 대책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약 3%의 적은 비율만이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함으로써, 유

학 등의 기타 응답 5.6%를 함께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한국행을 결심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의 수입을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67%정도의 응답자가 자녀교육비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내 집 마련(16.0%), 사업하기 위해서(8.6%), 노후대비 저축(4.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 2) 부모별거시 아동의 반응

부모의 한국 내 취업으로 인한 별거시 아동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기뻐했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30%(28명)의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4%(22명)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34%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반대로 14%는 매우 가고 싶어 했고 15%는 조금 가고 싶어 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별거로 인해 불안해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4%의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17%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50%에 해당하는 부모별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에 대해 별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9%의 아동만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

<표 2> 부모의 한국취업과 별거에 대한 아동의 반응 문항별 응답 비율 n=92/(%)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조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무응답      |
|----------------------------------|-----------------|-----------------|----------|-----------|-----------|----------|
| 1)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기뻐했다             | 28(30.4)        | 13(14.1)        | 22(23.9) | 9( 9.8)   | 8( 8.7)   | 12(13.0) |
| 2) 한국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부모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 31(33.7)        | 9( 9.8)         | 12(13.0) | 14(15.2)  | 13(14.1)  | 13(14.1) |
| 3) 부모와 떨어져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을 불안해했다   | 33(35.9)        | 16(17.4)        | 9( 9.8)  | 13(14.1)  | 8( 8.7)   | 13(14.1) |

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3. 부모별거와 아동의 문제행동

부모별거의 다양한 관련변인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별거기간, 어머니와의 별거기간, 부모와의 전화연락 횟수, 부모와 양육자간의 전화연락 횟수별 문제행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부모와의 편지연락 횟수는 앞의 기술통계결과 그 빈도가 극히 드물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화연락횟수의 경우도 하위범주 중 '매일' 혹은 '6개월에 1회 정도'라고 응답한 사례수가 5이라고 극히 낮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아동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점수는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에 따라(F=6.62, p<.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별거기간, 부모와 양육자간 전화연락 횟수, 부모와 아동간 전화연락 횟수,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을 2년 이하, 2-4년, 4년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별거기간이 가장 짧은 집단(M=1.47, sd=.29)에서

<표 3> 부모와의 분리기간, 연락빈도, 아동연령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                     | 구 분     | N  | M(SD)     | 집단비교     |
|---------------------|---------|----|-----------|----------|
| 부와의<br>별거기간         | 24개월 이내 | 21 | 1.41(.30) | F=.57    |
|                     | 25-48개월 | 35 | 1.40(.26) |          |
|                     | 49개월 이상 | 41 | 1.34(.30) |          |
| 모와의<br>별거기간         | 24개월 이내 | 28 | 1.47(.29) | F=6.62** |
|                     | 25-48개월 | 39 | 1.43(.28) |          |
|                     | 49개월 이상 | 33 | 1.25(.21) |          |
| 부모와 양육자간<br>전화연락 횟수 | 주 2-3회  | 52 | 1.39(.31) | t=.05    |
|                     | 월 1-2회  | 40 | 1.39(.25) |          |
| 부모와 아동간<br>전화연락 횟수  | 주 2-3회  | 61 | 1.39(.30) | t=.37    |
|                     | 월 1-2회  | 36 | 1.37(.25) |          |
| 아동의 연령              | 유치원생    | 21 | 1.43(.24) | t=.87    |
|                     | 소학생     | 84 | 1.37(.29) |          |

\*\*p<.01

가장 높은 문제행동점수를 보고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조선족의 한국취업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내의 부모 별거 가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별거 가정의 일반적인 경향과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를 조사하였다. 중국 심양시와 할빈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사는 아동들의

대리양육자 150명에게 부모별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부모별거 이유, 기간, 부모의 거주지, 연락방법 및 횟수)과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과 반응, 문제행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별거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대리양육자는 이모 혹은 고모, 할머니, 외할머니의 순으로 나타나, 기타로 응답한 8%와 비교하였을 때 부모별거 아동의 대다수가 친척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와의 별거기간은 아버지 별거기간이 평균 47개월, 어머니별거기간이 평균 40개월로 매우 긴 기간동안 별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 아동의 부모들은 62%가 한국에 취업하고 있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한국취업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부모와 아동간 그리고 부모와 양육자간의 연락은 대개 주 2-3회의 빈도로 전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모별거와 아동의 적응을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리양육자들은 부모별거 아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적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외로움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응답자가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다른 문항들에 비해 적응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한국에 취업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취업의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벌거나 자녀의 학비를 벌기위한 경우가 전체응답의 82%나 차지하여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별거시 아동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50%에 해당하는 부모별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대리양육자와 지내는 것에 대해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대리양

육자의 역할과 관계의 질이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별거 관련변인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의 별거기간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이 짧을수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부모와 별거를 시작하는 초기에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며 별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차츰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발달상의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음에도 그 영향을 적게 받거나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으로서의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연구들(Luthar & Cicchetti, 2000; 김승경 · 강문희, 2005; 현은미 · 박혜영, 2005)은 본 연구의 결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해 연구한 김승경과 강문희(2005)에 의하면, 이혼 후의 경과기간 변인은 아동의 탄력성에 직간접적 효과를 갖는다. 즉, 이혼이라는 역경 혹은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아동의 탄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변인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버지와의 별거기간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난 점은 별거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그 가능성의 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국 조선족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대부분 긍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이나 서구 다른 나라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의 예측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회환경적

특수성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한국취업으로 인해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별거라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부모별거의 현상이 중국 조선족 아동들에게는 특수한 경험이 아닐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론부분에서 언급한 중국 길림성 신화촌의 경우를 예로 들면, 조선족 전체 가정의 50%가 한국취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한국취업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모별거 등이 더 이상 특수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 심양시와 할빈시 조선족 유치원 및 소학교 학생(4,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도,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아동이 부모 모두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별거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부모별거의 현실을 부모로부터의 박탈이나 거부 등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적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측은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중국 조선족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을 설명하는 또 다른 사회환경적 특성으로는 중국 조선족의 가족형태와 대리양육자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한국이나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가정이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친척이 대리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조복희·이귀옥·박혜원·이주연(인쇄중)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가정의 약 37%가 확대가족의 형태를 띤다. 또한 부모별거 아동의 대부분이 친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그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확대가족문화의 특수성은 중남미와 중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수민족에게서도 나타난다(Suzrez-Orozco 등, 2002). 미국에 거주하는 중남미와 중국 소수민족의 연속이민과 가족분리 현상을 연구한 Suzrez-Orozco 등(2002)은 Bowlby의 이론이 주애착대상자(부모)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는 서구사회에서는 타당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확대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가족분리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모분리를 경험한 아동의 적응은 대리양육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같은 대리양육이라 할지라도 탁아소나 놀이방보다는 가정에서 모모나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을 때 우울감이 적고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보인다(김선주, 2002). 또한 애착이론에서도 아동의 초기 애착형성은 부모만이 아닌 '주양육자'와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Bowlby, 1973), 중국 조선족 아동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양육자와 생후 초기부터 강한 애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사람의 대리양육자에 의해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동은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및 타인양육 경험에 대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어머니의 부재를 거부로 인식하지 않는다(박지희, 1996; 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 뿐만 아니라 다른 양육자와의 강한 애착형성은 아동과 부모간의 애착을 보충해주어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Raikes, 1993).

요약하면, 최근 들어 중국 조선족 아동들이 부모별거를 경험하는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며 별거 기간도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부모별거에 따른 아동의 적응양상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을 연구할 때에 중국 조선족 사회의 환경적, 문화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특수성으로써 부모별거 아동의 보편화 현상과 가족형태 및 대리양육자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는 부모별거 아동과 대리양육자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대리양육자와 아동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실제로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이 부모이외에 대리양육자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모별거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이 대리양육자의 양육과 관계가 있는지 혹은 다른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의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를 함께 비교연구한다면 지역, 문화적 특수성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자보고에 의한 연구이외에 별거아동의 부모나 아동 자신의 자기보고식 연구가 병행된다면, 연구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동의 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보고함에 있어 양육자의 보고는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등이 작용하여 사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대상자에 의해 지각되어진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록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밝

히거나 상대적인 설명력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현상을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모별거 아동들의 생활환경과 적응을 파악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일권(2004). 한국체류 중국 조선족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2002).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 · 권정혜 (2001).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친구관계, 우울, 외로움을 중심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연구*, 6, 23-35.
- 김승경 · 강문희(2005).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6, 261-278.
- 문진희(1999).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문제행동 및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두복(1997). 중국 조선족의 한국 진출과 문제점. *중국 조선족 사회와 한국*, 31-49.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박지희(1996). 영아와 교사간 애착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04).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서용운(1978). 문제행동의 요인분석과 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17.
- 유명기(1999). 조선족의 해외취업과 사회문화적 변화. *제 31차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집, 313-328.
- 유영희(1979).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정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봉애(1994). 모성실조아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리(1994). 부모이별경험과 아동의 사회성숙도와 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2000). 한국취업과 중국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 (인쇄중).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집념 실태 :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 한국경제신문(2003. 1. 3.). 홀대받는 외국인 근로자. [www.hankyung.com](http://www.hankyung.com)
- \_\_\_\_\_ (2003. 4. 11.). 조선족 코리안드림 비용 7500\$.
- \_\_\_\_\_ (2004. 7. 19.). 조선족 신조선족.
- \_\_\_\_\_ (2004. 9. 23.). 조선족 여성 10명중 6명 식당에서 일한다.
- \_\_\_\_\_ (2004. 10. 8.). 중국 동북 3성 경제부활 '찬가'
- 한현숙(1997). 한국체류 조선족 노동자의 문화갈등 및 대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은미 · 박혜영(2005). 시설보호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 19-29.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Arnold, E.(1997). Issues of reunification of migrant West Indian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In J. L. Roopnarine & J. Brown(Eds.), *Caribbean families : Diversity among ethnic groups*(pp. 243-258). Greenwich, CT : Ablex.
- Baptiste, D. A., Hardy, K. V., & Lewis, L.(1997). Family therapy with English Caribbean immigra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 Issues of emigration, immigration, culture, and ra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9, 337-359.
- Behar, L. B., & Stringfield, S.(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NY : Basic Books.
- Bowlby, J.(1988).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 Basic.
- Clarke-Stewart, K. A.(1987). Predicting child development from care forms and features : The Chicago study.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 What does research tell us? Research monograph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pp. 22-43). Washington, DC : NAEYC.
- Cohen, L.(1976).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human attachment. *Psychological Bulletin*, 81, 207-217.
- Feldman, R. S.(2000).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NJ : Prentice-Hall.
- Glasgow, G. F., & Gouse-Shees, J.(1995). Themes of rejection and abandonment in group work with Caribbean adolescents. *Social Work with Groups*, 4, 3-7.
- Goossens, F. A., & van Ijzendoorn, M. H.(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s to professional caregivers : Relation to infant-parent attachments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 832-837.
- Grossmann, K. E., & Grossmann, K.(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93-114).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Hetherington, E. M., & Jodl, K. M.(1994). Stepfamilies as settings for child development. In A. Booth &

- J. Dunn(Eds.), *Stepfamilies : Who benefits? Who does not?*(pp. 55-79). Hillsdale, NJ : Erlbaum.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Hoffman, L. W.(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Howes, C., & Hamilton, C. E.(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 Kerns, K. A., Klepac, L., & Cole, A.(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83-201.
- Laible, D. J., & Thompson, R. A.(1997).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University of Nebraska.
- Londerville, S., & Main, M.(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7, 289-299.
- Luthar, S. S., & Cicchetti, D.(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Raikers, H.(1993). Relationship duration in infant care : Time with a high-ability teacher and infant-teacher attach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09-325.
- Ribble, M.(1970). *The rights of infants*.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mith, A., Lalonde, R. N., & Johnson, S.(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Mental Health*, 10, 107-122.
- Sroufe, L. A.(1983). Individual patterns of adapt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In M. Perlmutter (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6, 41-81. Hillsdale, NJ : Erlbaum.
- Sroufe, L. A., Carlson, E., & Schulman, S.(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imlinson-Kea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 Personality and development*(pp. 315-342).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uarez-Orozco, C., Todorova, I. L. G., & Louie, J. M. C. P.(2002). Making up for lost time :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41, 625-643.
- Thompson, R. A.(1998). Early sociopersonality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25-104). NY : John Wiley & Sons.
- Thrasher, S., & Anderson, G.(1988). The West Indian family : Treatment challenge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9, 171-176.
- Wallerstein, J. S., & Blackeslee, S.(1989). *Second chances*. NY : Ticknor & Fields.
- Yarrow, L. J.(1964). Separation from parents during early childhood. In Hoffman &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 Russell Sage.

2005년 4월 30일 투고 : 2005년 6월 20일 채택